

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위 원	성명 안철환 <i>안철환</i>
	현직위 위 원	성명 조강희 <i>조강희</i>
확 인 자	도시농업과장	성명 한석규
작 성 자	도시농업과 농업6급	성명 주성호

2018년 제1회

##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회의록



서울도시농업  
Agro City Seoul

2018. 6. 15.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2018년 제2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 회의록

## < 회의 개요 >

- 일 시 : 2018. 6. 15.(화) 16:00~18:20
- 장 소 : 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석자 : 13명
  - 위원(10) : 강태웅(공동위원장), 백혜숙(부위원장), 5.안철환·김경원·고창록·김진덕·옥진주·박동금·이종석·조강희(위원)
  - ※ 불참(5) : 이용범 공동위원장, 김영한·신동현·구은경·이기택(위원)
  - 서울시(3) : 도시농업과 한석규 과장, 이병훈 팀장, 주성호 주무관
- 주요안건
  - 박람회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 제7회 박람회 결과 및 제8회 개최방안 논의
  - 활성화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 도시농업 3.0 마스터플랜 마련
    - 도시농업조례 시행규칙 최종(안) 보고
  - 먹거리 마스터플랜 관련 도시농업분야 중간진단 논의
  - 기타 정보 공유 및 공람
    - 농업공화국 추진 상황
    - 2018. 제1회 위원회 회의록

## □ 주요 발언 내용

간사: 개회, 참석위원 소개,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 안내

위원장: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 제가 농산물식품공사에서 들어와 업무회의 일정이 있어 30분 정도만 진행하고 나가봐야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을 논의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릴 건, 배부해 드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 마스터플랜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에서 농업공화국 현상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인 제7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결과 및 제8회 박람회

를 자치구와 공동개최여부를 논의하겠음. 안전을 박람회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부위원장: 회의 자료에 의해 '제7회 박람회 개최 결과 평가 보고'와 '제8회 자치구 공동개최안', '공동개최 자치구 선정심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시에 논의와 심의를 요청함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람회 소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1: 작년과 비교 미흡한 점은 콘텐츠가 축적이 안되고 있다는 점임. 올해 강동에서 시행한 성과가 개최 장소에 남아있었다던가 내년에 지속될 여지가 있던가 하는 부분이 매년 아쉬움. 성공적인 행사개최 사례로 청원 생명축제는 한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행사내용 축적으로 외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되었음. 내실 면에서 매년 새로운 곳에 가서 처음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순회하는 것이 옳지 않음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위원2: 도시농업이 확산되려면 지역에서 관심 필요. 지자체의 관심을 위해서는 구에서 돌아가는 것이 필요. 다만 전체적인 것을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봄. 즉 다음에 나아지게 하려면 이끌어가는 주체를 일원화하고 고정화할 필요가 있음 .

부위원장: 다음 도시농업박람회 주제는 참고로 '도시농업과 건강'임

위원3: 농업공화국 추진이 잘 되어 조성된다면 박람회 최적지가 될 것이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함.

위원4: 농업공화국 설계 시 전시 공간 등 전달 필요. 지금처럼 자치구를 바꾸어가면서 하게 되면 콘텐츠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시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면 기본지침이 가지고 전시 공간 정도는 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임

위원2: 한계점이 있음. 연결성 없이 옷만 갈아입는 느낌임. 주제가 들려주기 좋은 발표하기 좋은 것으로 잡는 느낌임. 박람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얻어가고 있는지 등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위원장: 자치구에서 박람회를 계속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요? 관악의 전화를 받은 적 있는데 그렇게 공지된 것 아닌지?

위원5: 순회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음. 서울도시농업의 한계는 열심히 잘하는 자치구가 불과 몇 개 구로 적다는 것임. 박람회는 자치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임. 박람회 장소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관악이나 노원구에서 유치하려 함. 매년 박람회의 한계는 있으나 매년 진일보하고 있음을 평가할 수 있음. 작물재배 실력과 콘텐츠도 매우 나아짐. 물론 장소적인 한계는 있음. 그러나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면 서울시만의 잔치가 됨. 자치구에서 할 경우 민간협력을 통해 민간

이 주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음.

위원2: 흐름을 누군가 잡아 줄 수 있다면 좋음. 그러나 강동구의 다른 구는 더 힘들 수 있음. 방향성을 잡아줄 수 없다면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음

위원1: 박람회 후 평가내용에 매년 콘텐츠를 지속화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체(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었음. 지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함

위원6: 컨퍼런스와 관련 올해 6번째 개최임. 많은 역량이 축적되어 해외연사들과 평가해보니 여태껏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리고 세계농부대회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고민 필요 함. 또, 국제대회를 2-3개월 만에 준비하는 것은 시간 부족함. 연속성이 필요하니 미리 전년도 10월경 정도부터 준비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함. 예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리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준비가 가능할 것임.

위원2: 예산적인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목표하는 사람들 찾기 어려움

위원장: 중요한 예산 확보는 벌써 들어감. 따라서 최소한 박람회를 공동개최하려면 자치구와 협의하여 장소 문제를 빨리 확정하여야 함. 두 번째. 일관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져가야한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됨. 다만, 일관성 있는 행사를 유지하려면 총감독을 미리 선정 운영 필요. 선거결과 지자체장들이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농업분야 계속 발전적일 듯함. 예산을 별도로 연말에 확보하여 전년도부터 준비할 수 있게 탄력적 운영하면 좋을 것임. 첫 번째 안전인 박람회 장소 자치구 공동개최부터 의견 주시기 바람.

위원7: 관악구는 내년에 박람회장 선정될 것을 기대하며 올해도 축제를 준비하였음. 따라서 의지가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임

위원7: 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치구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됨.

위원장: 저변의 측면을 생각하고 의지가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원래의 취지처럼 순회하는 방법이 좋을 것임. (양해를 구하며 이석함)

부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음. 안전논의가 반복적인 말씀으로 지연되는 것 같음. 첫 번째 안전에 대해 요약하면 여러 염려는 있지만 공동개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 공동개최지 선정심사기준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니 회의자료 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실까요?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 자료의 소위원회 의견대로 자치구 공동개최와 선정심사 기준사항을 의결하겠음. 다음 논의할 의제를 활성화 소위원회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람.

위원6: 이번 주 월요일에 활성화소위는 개최함.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내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다만, 마스터플랜 3.0 내용에 대한 의견 나눔. 먹거리마스터플랜과 어떻게 결합할지. 도시재생과 도시농업과 결합방법. 실내농업과 접목방법 등을 의논하였고 도시농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종 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 제기됨. 또, 민 주도 행정지원의 시스템을 어찌 만들 것인가 논의함, 그리고 자료와 같이 지금은 도시농업 매뉴얼이 없음. 따라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매뉴얼을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양적. 정성평가지표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논을 함. 마스터플랜3.0에 대한 논의일정을 정해서 초안을 검토할 것. 2.0에서 3.0으로 넘어가는 확장되는 수립 철학적배경과 평가 등을 넣어 수립필요하고.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소통하여 정리하면서 연말까지 작업 진행하고자 함.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음 두 번째로 도시농업시행규칙에 대하여 논의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국제교류와 북한교류문제 빠졌으나 7항 기타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음.

부위원장: 활성화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마스터플랜3.0에 대한 의견 말씀 바람.

위원2: 1.0, 2.0, 3.0이 잘 수습하고 넘어가고 있는지 의문.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보여주기일 수밖에 없음.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아간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위원5: 모니터링과 평가가 사업에 들어가야 함

부위원장: 작년에 2.0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아쉬움

위원1: 지금부터라도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 그 현실위에서 방향과 컨셉을 정해야함. 심각한 현장의 문제가 많음

위원5: 작년에 현장모니터링을 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음

위원4: 부족한 면이 있으면 고치면서 준비해나가면 될 것임

위원5: 2.0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하는 건 어떨까. 민간주도를 할 수 없다. 용역(연구과제)을 주어서 하는 것이 현실적임.

위원1: 3.0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자. 2.0에 대한 오류도 반영하고...

위원2: 관련 사진들 보면서 간단히 정리하여 시간 감축하면 좋음. 현장을 일일이 보는 것은 어려움

부위원장: 빠르게 2.0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성화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떨지?

위원6: 작년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정리해야함. 정확히 정리 없이 3.0에 대한 과제를 심화시킬 수 없을 것. 미진한 부분은 전수 또는 샘플조사를 하면 될 것

위원2: 조사자료는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을 것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략 알고 있으므로 약간의 자료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리하는 과정이 있으면 됨

위원4: 모든 걸 2.0을 기반으로 3.0으로 갈수는 없음.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가져가서 지속성을 가지면 됨. 향후 활성화 소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 평가할 부분이 있으면 평가하고 논의부분이 있으면 토론하지요. 12월말까지 정리하기에는 예산 반영상 늦을 것

위원5: 3.0 자료 만들 때 배경과 취지를 넣어주면 좋겠음.

부위원장: 내년 예산부분은 공약부분이 들어가야 함. 비전을 농업도시로 위상을 높여서 도시농업 확산해야 함으로 활성화소위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TF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위원6: 발표는 내년 초에 하더라도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해설이 필요.

부위원장: 내년 시행할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이 언제까지 알려주어야 하는가? 평가내용은 언제까지? 이 두가지를 정하고 활성화소위에 알려 주기도록 하면 될 것 같음. 또 작년 평가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내년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6월말까지 정해져야함

위원2: 사업이 잘된 곳을 몇 군데 추려서주면 본인이 현장 가서 확인하겠음. 이를 통해 사업평가와 실적 확인

위원6: 첫 번째는 3.0에 대한 정리, 그리고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정리 후 새로운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7-8월중에 모두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 이후 내용 공유하는 건 어떨지

위원1: 도시농업에 대해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부분에 대해 정리필요. 위원6 말씀처럼 현장 모니터링 시간 필요. 그 토대위에서 실질적인 계획이 이뤄져야 함.

위원4: 도시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협업 필요하여 내용 추가 필요. 도시가축 부분은 어떻게 넣었는지... 축산업자들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음.

위원8: 도농상생부분에서 소가축도 필요. 그러나 용어에 대한 정리 필요.

위원5: 형식에서 2.0을 만들 때 시장님과 공무원 등 대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임. 3.0을 만들 때도 시장님 참여하에 많은 소통과정을 넣어 반영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음.

위원6: 부서를 넘어서 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역할도 필요할 것임.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님과 함께하는 자리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됨.

위원1: 유사시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근교에 식량보급기지 필요하다고 시장님 말씀함.

부위원장: 그럼 시간이 없으니 마스터플랜 관련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농업조례 시행규칙 최종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1: 조례에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넣어야 하지 않나. 사업 참여자격을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 사업주체와 평가를 분리해야할 것

담당 주무관: 상위법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으므로 개별조례나 규칙에 일일이 규정하지 않아도 됨

위원6: 규칙에 관하여는 활성화소위에서도 별다른 의견 없었음

부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의견을 논의하고자 함. 제가 먹거리시민위원회 도시농업분과위원으로 계속 참여하였음. 따라서 제가 그간에 먹거리마스터플랜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음.(회의자료에 의해 보고함)

위원6: 먹거리시민위원회 내에서 농업교육영역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으므로 의제를 우리가 가져와야하지 않나 생각됨.

부위원장: 예산과 다양성면에서 축소될 우려가 있음

위원4: 업무 추진부서는 농업기술센터를 교육의 중심으로 삼으면 될 것임

위원1: 안전먹거리 관련 도시농업부분이 해결할 과제임.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도시농산물 안전인가 여부에 대하여 계속 문제제기가 있음. 우리도 그에 관해 준비가 필요함

위원4: 시립대 교수가 용역함. 자료 있음. 공동위위원장께서도 잘 아심. 자료를 구해서 우리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위원8: 농약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퇴비를 과하게 쓰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또, 판매되는 퇴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들여 모니터링 필요. 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그 결과는 공개되는지?

담당 주무관: 서울시 도시농업 안전성조사 조사는 서울보관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있으며 공개 가능함.

위원2: 주말농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 오염된 지하수로 농산물을 씻어 먹는 문제.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농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항 필요.

위원8: 안전농약 사용방법은 약품에 다 표기가 되어 있음. 텃밭에 식수의 안전성도 문제임. 그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 신고에 의해 농업용수와 식수로 관리하게 되며 각각 검사기준이 다르며, 텃밭은 모두 농업용수로 신고 됨. 식수는 매우 검사항목이 많음.

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기타사항 논의와 공유 공람사항을 보도록 하겠음. 농업공화국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에 앞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간사: 회의자료에 의하여 '농업공화국 추진사항 보고'를 보고함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음. 지난 번 회의록은 참고하시고 농업공화국과 기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7: 단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농업박람회 결과를 백서로 남겨지는 것 필요. 책자로 자료화 필요

부위원장: 보통은 위탁업체에서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 온라인으로 축적되어있으면 좋은데 부족함. 또, 홈페이지를 계속 살려놓아 자료가 공유되고 홍보되도록 해주기 바람.

위원2: 항시 박람회는 시간이 부족하여 고민할 시간을 못 가짐.

위원5: 국제컨퍼런스 참가 차 방문한 파리 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세계도시농부대회 개최문제, 서울과 온라인 인터넷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도시농업시설 시범조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음. 파리에서 협의 후 연락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겠음.

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